



## 보도자료

- 기반시설기획팀 팀 장 유 인 상  
사무관 김 종 천
- ☎ 02-2110-8341
- kjcheon@moct.go.kr

• 3월 29일 배포(총 7 매)

3월 3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도로·철도·화물기지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

□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총 사업비 2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민간투자사업(서울-문산 등 5개)에 대한 기예처 민간투자사업심의회가 3.28.자로 상정 통과됨에 따라,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.

- 이번 심의회 상정 통과된 사업은

- ① 서울-문산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
- ② 서울-포천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
- ③ 전라선 익산-신리 복선전철 실시협약(안)
- ④ 경전선 함안-진주 복선전철 실시협약(안)
- ⑤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실시협약(안)

□ 서울-문산 및 서울-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은

- '05년에 수립된 민자사업추진계획(도로사업)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10개 민간제안사업 중 각각 7·8번째 사업이며,

※ 나머지 2개 사업(화도-양평, 광명-서울)도 조만간 착수 예정

- 서울-문산 및 서울-포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이 부여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되며,

※ BTO(Build Transfer Operate) 방식

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

- 제3자 제안공고 이후,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오는 '09년에 착공하여 '13년 완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이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기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.

- 서울~문산간은 기존 자유로 및 통일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북방향 교통량을,

- 서울~포천간은 국도 3·43호선 및 동부간선도로 등의 것으로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위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과 다르게 정부가 일정한 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대폭 줄었으며 계획 단계부터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건설기간의 자금조달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.

- 아울러,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수요를 재검증함으로써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수요 예측 오류의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경전선(함안-진주)과 전라선(익산-신리) 복선전철 BTL 사업은

- 사업시행자 지정(안)을 최종 확정하고 동시에 실시협약체결도 4월중에 실시하여, 또한 인·허가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착수 할 계획이며, 경전선은 2013년 전라선은 2011년 개통을 하게 된다.

※ BTL(Build Transfer Lease) 방식

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,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·수익하는 방식

- 이번에 추진하는 경전선(함안-진주간, 20.4km)과 전라선(익산-신리간, 34.4km) 복선전철 사업은 각각 3,383억원과 4,707억원의 민간사업비(국고지원없음)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공사로서 BTL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동 사업은 조기완공에 따른 투자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계획 단일화 및 콘크리트 궤도 확대적용, 유지관리비용 최적화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

- 경전선은 마산, 진주권까지 KTX가 운행되는 등 서남해안권의 철도 수송능력이 확충되고 전라선도 중부 호남권인 전주, 순천까지 KTX가 운행되며 특히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 해양 EXPO 유치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.

□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는

- 체계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의 일환으로, '08년 착공하여 '10년 준공될 예정임.
-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일원에 BO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2,452억원(국고지원없음)을 들여 389천m<sup>2</sup>(11만 8천평)의 규모로 복합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가 들어서게 된다.

※ BOO(Build Own Operate) 방식

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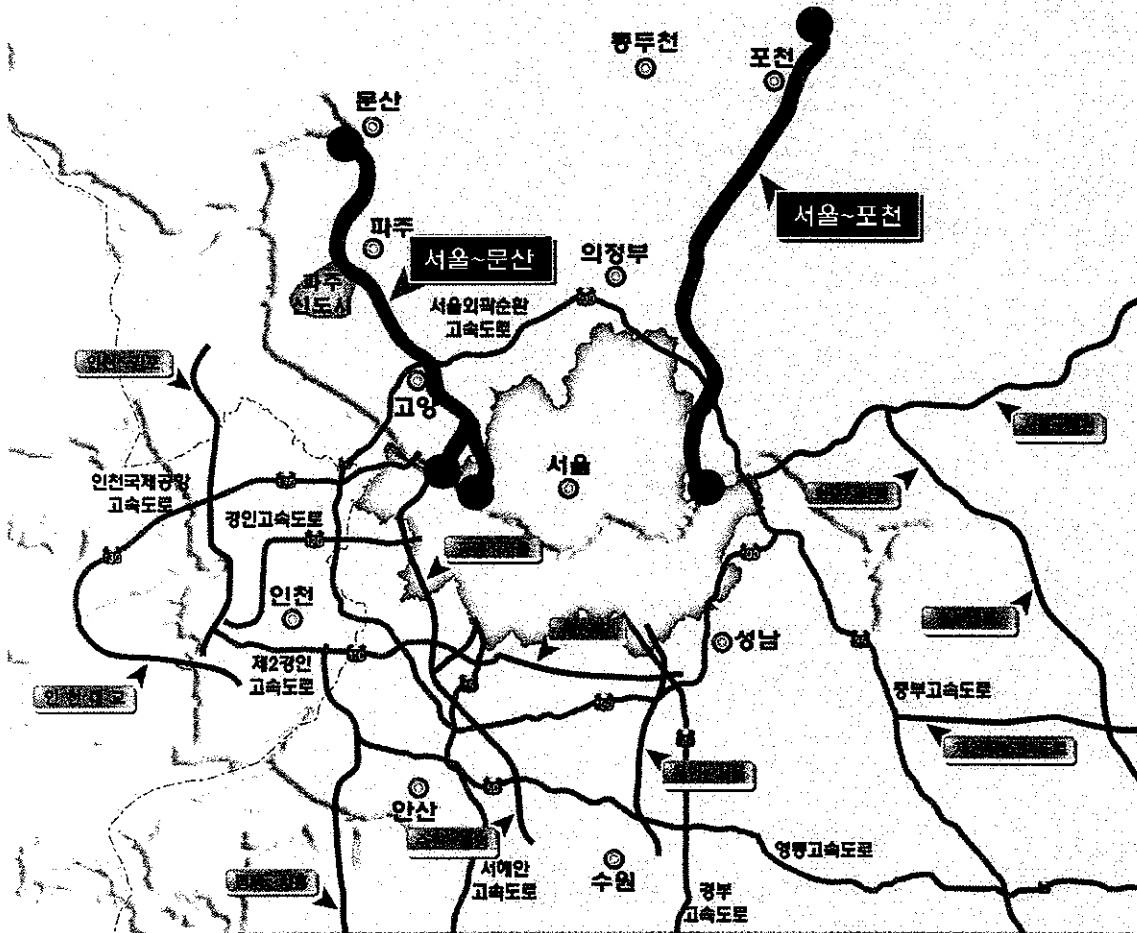
-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되면 연간 일반화물 170만톤과 컨테이너 23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, 수도권북부지역 및 남북교역 물동량 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.

- 첨부 : 1.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 
 2. 철도 BTL 민자사업 위치도  
 3.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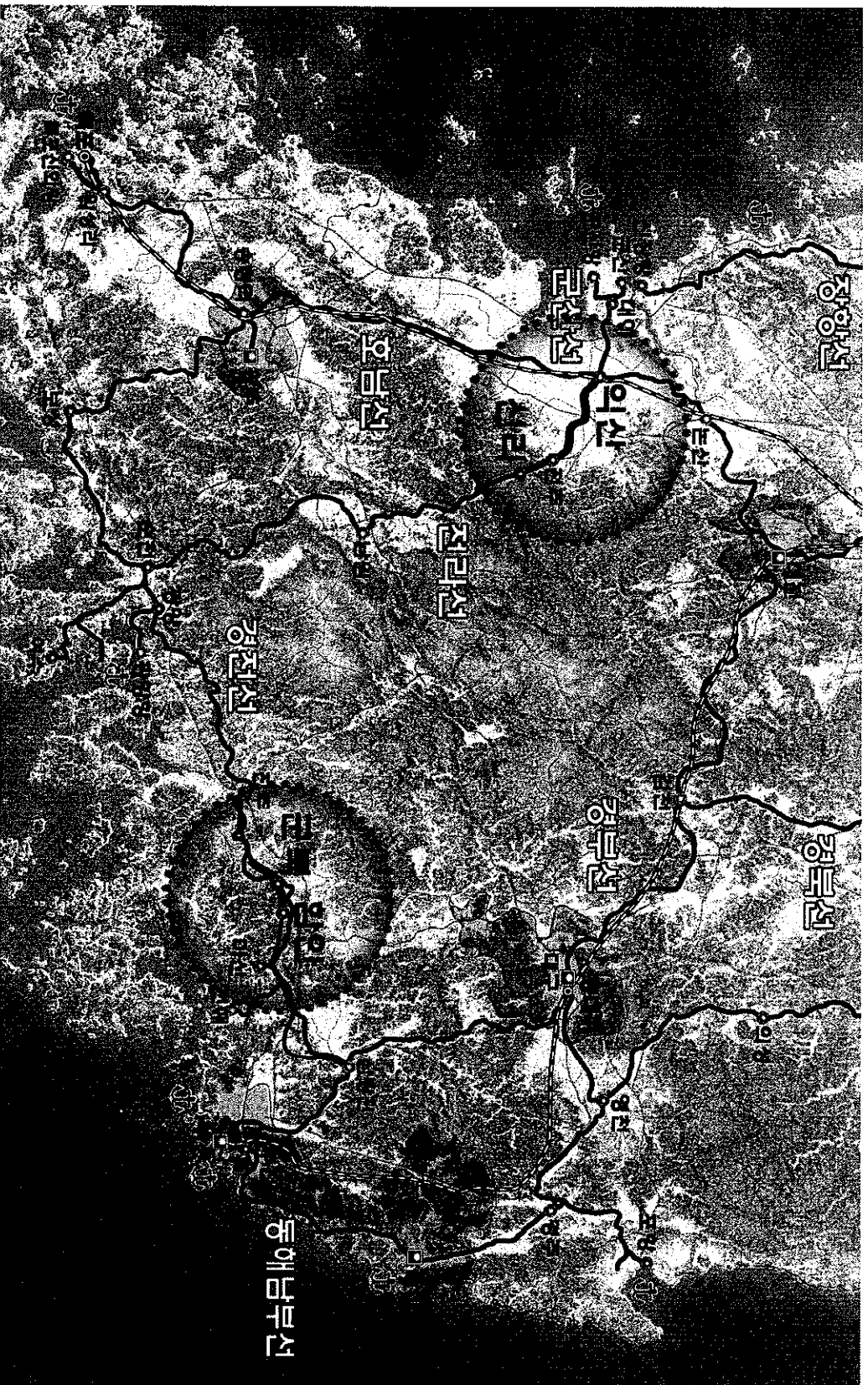
<각 분야별 의문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>

- 고속도로 : 민자사업팀 사무관 방 현 하  
☎ 02-2110-8357 cosmos@moct.go.kr
- 철도BTL : 철도건설팀 사무관 서 종 태  
☎ 02-2110-8355 sjt102@moct.go.kr
- 수도권북부 내륙화물기지 : 물류시설정보팀 사무관 이 원 돈  
☎ 02-2110-8225 lee11111@moct.go.kr

# 1. 민자고속도로 위치도



2. 철도 BTL 민자사업(전라선 및 경전선)위치도



### 3. 수도권북부내륙화물기지 위치도

